

# 도서 연체자 사면으로 책 읽기 '봄업'

# 고봉 기대승·퇴계 이황 학문·사상 조명

전남대 호남학과, 21~22일 영호남 대표 두 서원 동계연합 강학회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일, 광주시청에 모여 기념 행사를 관람하는 시민들의 모습.

〈광주일보 자료〉

## 광주·전남 78개 공공도서관 참여 시민들 자발적 책 반납 독서 동참 대출 정지 해제로 독서문화 확산

지역 도서관들이 최근 '도서 연체자 특별해제 행사'를 열고 연체자에 대한 도서대출 중단을 해제했다. 그동안 대출이 제한됐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책을 반납하고 독서 열풍에 동참하는 등, 선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립도서관(무등, 사직, 산수), 전남도립도서관 및 도내 75개 공공도서관 등이 실시한 이번 조치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맞물려 진행됐다. 독서하려는 의지가 있음에도 장기 연체로 대출이 제한됐던 시민을 도서관으로 다시 불러들이겠다는 취지다.

먼저 광주시립도서관은 지난 12월 10일부터 31일까지 '연체자에 대한 대출 정지 해제'를 실시했다. 참여 접수는 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받았으며, 총 138명 해제가 결정됐다.

무등도서관 49명, 사직도서관 63명을 포함해 산수도서관 26명 등 다수 회원이 '광주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6장과 같은 조항에 따라 이 같은 혜택을 받았다.

광주시립도서관 문헌정보과 정원영 사서는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수상한 시점에 도서관 방문율이 폭증했지만, 대출 제한으로 책을 빌려볼 수 없던 시민들이 있어 아쉬움이 남았다"면서 "지역 독서문화를 활성화하고 혜택을 주는 차원에서 진행했던 행사가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와 맞물려 시립도서관은 올해 책 읽기 문화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다.

오는 4월 5일에는 시청 시민홀·야외광장에서 제13회 도서관 축제인 '도서관 문화마당'을 열 계획이다. 4월 중에는 무등·사직·산수도서관에서 도서관 주간과 책의 날을 맞아 작가 초청강연, 체험, 전시가 열리는 가족 대상 독서캠프(사직), 어르신 자사전 출판 프로그램(무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전남도립도서관·도내 공공도서관도 '한강 작가 노벨상 시상식 기념-연체 풀고 바로 대출' 행사를 같은 기간 진행했다.

도립도서관 연체자 및 대출정지 회원 총 1331명(24년 12월 9일 기준)을 비롯해 도내 공공도서관 75개소 회원을 대상으로 특별 사면을 추진했다. 이는 전라남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

(독서문화 진흥 시책의 추진), 제9조(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협조) 등에 근거를 둔 조치다.

그 결과 도립도서관에서 총 324명이 참여했으며 강진군도서관 회원 49명, 광양중마도서관 123명, 해남 군립도서관 71명 등이 혜택을 봤다.

이 외 순천 삼산도서관(126명), 연향도서관(167명), 여수 이순신도서관(222명), 장성군립중앙도서관(126명)에서 대출해금 조치가 이어졌다. 화순열린도서관(317명), 전남도교육청진도도서관(99명)에서도 연체 해제가 결정됐다.

특히 나주 빛가람시립도서관에서는 이번 행사로 총 1740명이 혜택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도서관은 유실됐던 책을 회수해 빈 책장을 채우고, 걸음이 끊겼던 시민은 '텍스트랩' 열풍에 동참하는 등 효과가 뒤따랐다는 분석이다.

전남도립도서관 정보서비스팀 김명선 주무관은 "연체됐던 책을 반납해야만 대출 중지 조치를 '해금'해 주는 방식이다"며 "이번 조치가 도서 회수는 물론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한강 작가의 수상과 맞물려 '독서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 추진한 행사가 도민과 기관 양면에 호혜상생의 결과를 가져온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류빈 기자 rubi@



월봉서원은 16세기 조선을 대표하는 성리학자 고봉 기대승의 학덕과 인품을 기리기 위해 건립됐다. 〈광주일보 자료〉

조선 유학의 전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유학자로 고봉 기대승을 들 수 있다. 광주 광산 출신인 고봉은 16세기 조선을 대표하는 성리학자로 본관은 행주(幸州)이며 시호는 문헌(文憲)이다. 유학사에서 고봉 기대승과 퇴계 이황의 사철년은 조선유학사상사의 중요한 논쟁으로 꼽힌다. 학계는 이들의 학문적 교류와 논쟁으로 조선의 성리학은 도약을 이룬 것으로 보고 있다.

호남과 영남의 대표 서원이 기대승 서세 45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 교류를 진행한다.

전남대 호남학과는 21일~22일 광산구 월봉서원에서 '2025년 월봉서원·도산서원 동계연합 강학회'를 연다. '퇴고양선생의 오래된 왕복시간을 돌아보다'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강학회에는 안동·영남 지역 주요 인사들도 참석한다.

강학회 첫 문은 21일(오후 1시) 선비복 차림으로 송덕사에서 고유례를 지내는 것으로 연다. 이어 주강(主講), 석강(夕講)이 진행되며, 22일 오전에는 조강(朝講)도 계획돼 있다.

강의는 전남대 호남학과 김경호 교수를 비롯해 퇴계학연구원 이관선 선임연구원, 전남대 인문학연구원 장복흥 교수, 광어회 류근성 강주, 전남대

철학과 이원석 교수,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김태환 특별연구원 등이 진행한다.

전남대 호남학과 김경호 교수는 "이번 동계연합 강학회는 고봉 기대승 서세 450주년을 기념해 영호남의 대표 두 서원이 참여해 진행한다"며 "두 지역의 학술 및 인적 교류·협력 뿐 아니라 고봉과 퇴계의 학문과 사상을 다각도로 조명해볼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프로그램은 고봉선생 송덕회와 행주기씨 문헌공중중이 주최하고 전남대 호남학과 호남학당이 주관한다. 또한 경북 안동 도산서원을 비롯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후원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전남서 334개 문화예술 사업 '꽃' 피운다

전남문화재단, 정시공모 결과 발표...청년예술가 활동 지원 등

전남에서 334개의 다양한 각색 문화예술 사업이 '꽃'을 피운다.

전남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은영·재단)이 '2025 전남 문화예술지원사업 정시공모 선정 결과'를 지난 17일 발표했다. 공연·문학·시각 등 다양한 장르에서 총 984건이 접수된 가운데, 6개 사업에서 334건을 최종 선정했다.

분야별로 '예술활동지원' 301건, '청년예술가 활동지원' 14건,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지원' 6건 등을 선정했다. 이 밖에도 작가들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창작공간지원' 5건, 경계없는 예술을 지향하는 '자율기획형' 3건, '공연장 협력 예술단체 지원' 5건이 선정됐으며 총 지원액은 20억3500만 원이다.

청년예술가 김명진, 강우리를 비롯해 루트머지, 극단 파도소리, 씨네로드, 공예미술관 보임켄 등이 사업에 선정됐다. 자율기획형에는 돈키호테 플랫폼과 이우진 등이, 공연장 협력 예술단체에



작년 진행했던 선정단체 워크숍 장면. 〈전남문화재단 제공〉

더 현음재, 극단 청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재단은 사업 수행을 돕기 위해 오는 25일 무안 남악북향주민센터 공연장과 27일 순천 전남동부 지역본부 이순신 강당에서 선정단체 워크숍도 개최한다. (각각 오후 2시 진행)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사용 교육부터 보조금 집행 안내, 예술인 고용·산재보험 및 저작권 관련 교육, 홍보 분야 특강 등을 진행한다.

공모 결과는 재단 누리집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되새기는 송기숙 선생 삶과 문학

송기숙선생기념사업회, 내일 전일빌딩245서 정기 총회

송기숙 소설가(1935-2021·사진)는 한국 소설 문단에 큰 발자취를 남긴 민중문학의 거장이었다. 우리시대의 마지막 리얼리스트라 평가될 만큼 자신만의 독특한 문학세계를 구축했다.

2025송기숙선생기념사업회(이사장 임현영) 정기총회가 21일 오후 4시 전일빌딩 245 4층 광주시 민사회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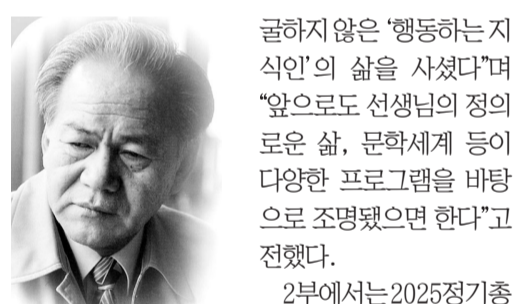
이번 정기 총회는 강연과 총회, 정기 이사회 등

으로 진행된다.

1부는 '행동하는 지식인, 송기숙의 저항정신'을 주제로 조은숙 송기숙선생기념사업연구위원이 강연을 한다.

조 연구위원은 송기숙의 삶과 소설세계를 토대로 작가와 행동하는 지식인으로서 일관되게 추구해온 삶과 가치 등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조 연구위원은 "송기숙 선생님은 독재의 폭압에



굴하지 않은 '행동하는 지식인'의 삶을 사셨다"며 "앞으로도 선생님의 정다운 삶, 문학세계 등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조명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2부에서는 2025정기총회가 펼쳐진다. 사업보고 및 계획, 신임 이사장 인준 등이 진행된다. 이어 3부에서는 사업보고 및 계획, 신임 이사장 인준 등이 펼쳐진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아느냐/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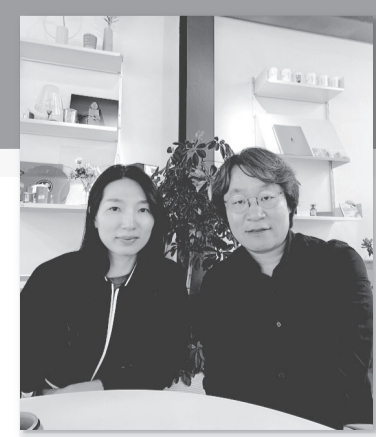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